

# 남원 지역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 조선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inting of Namwon Region : In the Choseon Dynasty

강혜영(Kang, Hye-young)\*\*

## ◁ 목 차 ▷

1. 서론	5. 출판된 문헌의 분석
2. 남원 지방의 지리행정적 배경	5.1 주제별 분석
3. 남원 지방의 사회문화적배경	5.2 시대별 분석
3.1 남원지방의 학인들	5.3 발행소별 분석
3.2 교육기관	5.4 편저자 및 발행자 분석
4. 전적 문화 발달의 역사적 고찰	6. 결 론
4.1 문헌상의 고찰	<참고문헌>
4.2 책판목록상의 고찰	

## < 초 록 >

본고는 조선조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판종별, 주제별, 출판시기, 발행소, 저자 및 발행자별로 분석하였다.

현존본과 문헌목록 등의 자료에서 조사된 자료는 목판본 118종과 활자본 34종이고, 년대가 확인된 자료는 목판본 19종과 활자본 34종이다. 주제별 분석은 총 152종이 대상이었으나 시대별, 발행소별, 저술자 및 발행자 분석에서 총 53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제별 분포에서 집부가 45종(29.6%)로 가장 많고, 자부가 37종(24.3%), 사부가 36종(23.7%), 경부가 34종(22.4%)이다. 목판본은 각 주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활자본은 집부 별집류와 사부 보계류에 편중되어 있고, 자부 예술류 서화지속의 문헌이 많다.

2) 시대별에서는 19C가 24종(45.3%)으로 가장 많고, 20C가 12종(22.6%), 16C와 17C는 각각 4종(7.5%)이다.

3) 발행장소에는 발행지 미상이 20종(37.7%)으로 가장 많고, 관공서가 17종(32.1%), 재실이 5종(9.4%), 서원과 사찰이 4종(7.5%)이고, 보소가 3종(5.7%)이다.

4) 저자 및 발행자는 남원의 지방관, 남원의 세가, 서원배향자, 의병활동자, 명현 등이다.

要語 : 남원, 인쇄, 목판본, 목활자본, 발행소, 주제별, 시대별, 저자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전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한 논문임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khelen@chonbuk.ac.kr)

접수일: 2005년 11월 8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8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is to generally analyze printing in Nam-won region whose printings areas were confirmed by colophon or records by edition, printing years, subjects and authors(or publisher) on the basis of the existing prints from Chosun Dynasty to the period before 1910.

To examine printing by subjects, 118 kinds were wooden prints and 34 kinds were wooden type prints. To analyze printing by times, by printing editions, printing institutions, printing place, and authors(or publisher) are as follow:

1) To analyze by subjects, collection of literature division(集部) were 45 kinds (29.6%), all philosophers and scholars division(子部) were 37 kinds(24.3%), historical division(史部) were 36 kinds(23.7%), the Confucius document division(經部) were 34 kinds(22.4%).

2) To analyze by printing years, 24 kinds(45.3%) were printed in the 19th century. 12 kinds(22.6%) were printed in the 20th century. 4 kinds(7.5%) were printed in the 16th century and the 17th century.

3) To analyze by printing places, most of prints in district were printed by unknown places as like 20 kinds(37.7%). And then government places were 17 kinds(32.1%). 53 kinds out of collected documents had indication of printing places. 5 kinds(9.4%) in Jaesil(齋室), 4 kinds(7.5%) in shrines and temples, 3 kinds(5.7%) in Boso(譜所).

4) To analyze by authors(or publisher), there were 5 kinds of the results. (1) government officials in the Nam-won, (2) famous Yangban, (3) persons of enshrine, (4) patriotic soldiers, (5) distinguished sage group.

Key words : Nam-won, printing, wood prints, wood type prints, publisher, subject, period, author

## 1. 서론

기록 매체가 다양하지 않았던 시대에 학술자료로서 서적이 가지는 가치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통시대적으로 학술문화를 가름하는 지표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동양과 서양에서도 공통적인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중국 주나라 무왕 시절에 기자가 조선에 들리으면서 서적의 전래도 같이 되었던 것에서 대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서적의 생산이 많지 않았던 고대일수록 서적의 희귀성은 가중되었고, 서적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예부터의 전통이었다.

남원은 예부터 물산이 풍부하여 지역민들이 여유롭게 생활하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한 지방이었다. 남원은 통일신라시대에 소경이 설치될 만큼 지리적, 정치적, 군사적 위상이 높은 곳이었고, 고려시대에도 등급이 높은 부(府)로서 전라도 지방을 통치할 때 주요한 거점이었던 곳이다. 조선시대에도 문과 급제자나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활동한 사람들의 숫자 등을 비교해 볼 때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인물을 배출한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왕조 문화부터 서민문화에 이르기 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남원 문화를 보다 더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남원문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학문적인 활동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남원의 학인들과 사회적 교육기관들을 중심으로 학술적 저술활동과 인쇄 출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남원지역에서 발전된 서적 문화 전반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저술 활동을 주도하였던 남원의 세가로 꼽히는 양반가문들과 교육 및 학술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기관을 살펴보고, 남원에서 출판된 서적들의 판종과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남원 지방의 식자층들이 일반적으로 지향하였던 학문적 동향, 발전 그리고 특징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남원지방의 사회, 문화 및 교육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서 '전북학'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남원은 과거 남원부의 대부분으로 운봉, 곡성, 구례, 임실 지역을 포함하며, 출판연대는 구한말인 1910년 이전까지로 한다.

## 2. 남원지방의 지리 행정적 배경

남원은 삼한시대에 마한의 영역에 속하는 곳이었다. 남원의 국명은 고녀국(古腦國)<sup>1)</sup>이었고, 지리산을 경계로 진한과 변한의 국경지대였다. ‘남원’이라는 지명이 문헌기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이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고령군, 대방군, 남대방군, 대방주, 남원소경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남원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남쪽의 중심도시이며 남방 문화의 중심지로서 신라의 수도인 경주와 같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5소경의 하나였다.

고려시대에도 남원은 등급이 높은 부(府)로서 적어도 현재의 전라북도 동남부 산간지대에 있어서 통치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조선조 태종 13(1413)년에 남원도호부(都護府)로 바뀌어 담양부, 순창군과 9개현(임실, 무주, 곡성, 진안, 용담, 옥과, 운봉, 창평, 장수)을 관할하였다.

세조 3(1457)년에 남원 진영(鎭營)이 설치되어 순창군과 곡성, 옥과, 구례, 창평, 장수, 운봉 등 6개 현의 군사를 관장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에 의하면 세종이 전라도의 행정구역을 크게 전주도, 나주도, 남원도, 장흥도의 4개 계수관(界首官)으로 나눌 때 남원은 남원도계수관의 도호부로서 순창, 용담, 구례, 임실, 운봉, 장수, 무주, 진안, 곡성, 광양을 관할하였다. 효종 5(1654)년에는 전라좌영이 설치되어 남원도호부, 순창군과 6개현(장수, 운봉, 구례, 곡성, 옥과, 창평)의 군사를 관장하였다. 고종 32(1895)년 5월에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을 때 남원은 남원관찰부로서 전라도 지역의 4개부(전주, 남원, 나주, 제주)중 하나였다. 이때는 관찰사가 파견되는 지방행정의 중심부가 되어

1) 건설부 국립지리원, 『한국지리』 지방편 IV(광주 전북 전남 제주), 1986, 73.

오늘날 전남의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일대와 전라북도 동북부 산간지대를 관할하는 도청소재지가 되었다.<sup>2)</sup>

1895년까지 남원부에 속하였던 지역은 구례, 임실, 운봉, 장수, 무주 등이었다. 1년 뒤인 건양 원(1896)년에 13도제가 시행되자, 남원은 전라북도의 26개 군 중에서 전주와 함께 일등군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통폐합으로 운봉군의 군내면, 서면, 남면, 북상, 북하, 산내, 동면 등 7개 면 전역과 임실군 아산면 후천리 일부와 장수군 하반암면 와룡리 일부, 전라남도 창평군 입면의 하촌 일부를 병합하여 남원, 이백, 주천, 흑송, 주생, 대산, 대강, 사매, 덕과, 보절, 왕치, 금지, 산동, 수지, 두동, 운봉, 아영, 산내, 동면 등 19개면 186개리를 관할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남원은 전주와 나주에 못지않거나 혹은, 오히려 저들 도시보다 더 중요한 지역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남원의 지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남원의 동쪽에는 소백산맥이 뻗어나가고 있으며, 북쪽으로부터는 규모가 큰 진안고원이 있고, 그 고원은 서쪽으로 뻗어 영동으로부터 금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을 거쳐 전남의 곡성, 구례, 순천, 광양일대까지 뻗어 내리고 있다. 진안고원에는 북쪽으로 금강이 흘러가고 남쪽으로는 섬진강이 흘러서 남해안으로 들어간다.

남원은 섬진강 유역을 따라 형성된 규모가 큰 분지로서 그 평야가 넓어 물산이 풍부한 동시에 동남쪽에 자리잡은 지리산 기슭에는 풍부한 임산자원이 있어 전라도 지역 가운데에서 ‘천부지지(天府之地) 옥야백리(沃野百里)’라 하여 가장 풍요로운 고을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또한 노령산맥과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섬진강의 높고 낮은 고개를 통하여 전라도의 각 지방과 경상도를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곳이기도 하였다.

2) 남원의 문화유산, 남원문화원, 2001. 25.

### 3. 사회 문화적 배경

한 지역의 학술적 저술 및 출판문화를 이루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작용한다. 당시의 학문적 기반을 만들고 있었던 양반 가문과 서적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들이 그러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남원지역의 사회적 배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에는 남원의 양반 가문을 비롯하여 향교, 서원 및 사원 등 교육기관의 수량과 활동 정도이다. 특히 이들의 교육 활동 중에서 장서제도는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서적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3.1 남원지방의 학인들

남원 지역에서 학문적인 주류를 이루었던 인물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국조인물고」나 남원 지방 읍지의 인물조에 기술된 인물들이다. 읍지는 그 마을의 모든 역사적 연혁에 대한 기록일 뿐 아니라 그 지방에 연고를 가졌던 인물에 대한 정보원이기도 한다. 심구령(沈龜齡), 양성지(梁誠之), 윤효손(尹孝孫) 등은 「용성지(龍城誌)」의 인물조에서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는 남원지방의 세가로 꼽히는 양반가문 일족들이다. 남원에서 양반 가문으로 지칭되는 일족에는 최·노·안·이(崔盧安李)<sup>3)</sup>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사매면 노봉에 세거하고 있던 최항의 후손인 삭영 최씨일족, 임실군 삼계면 뒷내(당시에는 남원에 속했음)에 세거하였던 노진의 후손인 풍천 노씨일족, 이백면 안터에 세거하고 있던 안처순의 후손인 순흥 안씨 일족, 임실군 둔남면 둔덕에 세거하고 있던 효령대군 보(補)의 후손인 전주

3) 태허정(太虛亭) 최항(崔恒:1409 ~ 1497), 옥계(玉溪) 노진(盧禎: 1518 ~ 1578), 사재당(思齊堂) 안처순(安處順: 1493 ~ 1534), 효령대군 보(補)의 후손인 진주이씨, 또는 동고(東阜) 이준경(李浚慶: 1499 ~ 1572)의 후손인 광주(廣州) 이씨를 말한다. 양만정, 『순창지방의 양반가문에 대한 고찰』, 『송준호교수정년기념논총』 1987. 333.

이씨, 또는 덕과면 사리반에 세거하고 있던 이준경의 후손인 광주(廣州) 이씨일족들을 말한다. 사가본을 생산할 수 있었던 남원 지역의 세가에는 죽산 박씨가(朴心齋), 경주 김씨가(杜慕齋), 해주 오씨가(龍陽精舍), 완산 이씨가(梅岸精舍), 순흥 안씨가(華谷丙舍), 진주 소씨가(霽月齋) 등이 있었다.

세 번째는 사원이나 서원에 배향되었던 인물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 지역의 사원이나 사원에 배향된 인물들은 향촌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로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학자들도 있으나 이들 양반세가의 일족들 중에서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서원에 배향된 인물로는 안처순, 홍순복, 노진, 최상중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인물들은 철저히 정립된 가문의식을 바탕으로 학문적 연마와 타지방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사가본이나 서원본 혹은 사원본을 생산할 수 있었던 당시 남원지방 저술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남원의 유학자나 인물로 꼽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1) 양성지(梁誠之: 1415 ~ 1482)는 조선초기의 유학자로서 「눌재집(訥齋集)」, 「유선서(諭善書)」, 「시정기(市政記)」, 「삼강사략(三綱事略)」 등의 저서를 남겼다.

(2) 윤효손(尹孝孫: 1431 ~ 1503)는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고, 호는 추계(楸溪)이고 시호는 문효공(文孝公)이다. 「경국대전」 편찬과 「오례의」를 저술하였으며, 「성종실록」을 수찬하였다.

(3) 소연(蘇沿: 1390 ~ 1441)은 정주학에 정통하였으며, 호는 행정(杏亭)이다. 「심성변(心性辨)」, 「존심주경설(存心主敬說)」, 「거인유의설(居仁由義說)」, 「지도위학(志道爲學)」 등의 저술활동으로 여말 선초의 성리학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호암사(湖岩祠)에 제향되었다.

(4) 노진은 조선 명종 1(1546)년에 중광문과에 급제하여 충청관찰사, 전주부사,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고, 기대승·노수신·김인후 등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호는 옥계이고, 시호는 문효이다. 남원의 창주서원과 함양의 당주(滄洲)서원에 배향되었다.

(5) 최상중(崔尙重: 1551~1604)은 삭영 최씨 일족에서 두드러진 인물이다. 선조 9(1576)년 사마시를 거쳐 1589년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이 되었고, 1592년 임진란 때 의병을 일으켜 눈부신 공을 남겨 도원수 권율의 종사관이 되었으며, 덕행으로 노봉서원에 배향되었다.

최상중과 그의 아들인 최연과 최은, 최희지, 최유지의 문집을 합하여 「대방세고(帶方世稿)」로 간행되었는데 세칭 「최씨오현집(崔氏五賢集)」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6) 안처순은 효행이 뛰어나 모친의 봉양을 위해 구례현감으로 제수되어 떠날 때 인사차 인견한 임금에게 「근사록(近思錄)」을 요청하여 출판하였다.

(7) 조정남(趙慶南: 1570~1641)은 정유재란때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호는 산서처사 혹은 주몽당이다. 중봉 조헌의 문하에서 성리학과 실천공행의 요체를 배워 모든 이들의 격찬을 받았다. 「난중잡록(亂中雜錄)」 10권 1책이 필사본으로 현전되고<sup>4)</sup>, 「윤리변」, 「성리석」, 「오상론」 등도 저술하였으나 전하지 않고 있다. 숙종7(1681)년에 지방 유림들과 합의하여 남원 신포에 주포(周浦)서원을 건립하였다.

(8) 양대박(梁大樸 1543 ~ 1592)은 본관이 남원이며, 목사 규현의 아들로 태어나 우계 성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진란에 창의하여 크게 활동하다가 진중에서 병사하였다. 병조판서로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장이다.<sup>5)</sup> 시문집으로 「창의록」, 「청계집(淸溪集)」과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가 있다.

(9) 변사정(邊士貞: 1529 ~ 1596)은 임진란때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였다. 그의 문집인 「도탄집(桃灘集)」이 1870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sup>6)</sup>

4) 남원의 문화유산, 181.

5)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전주: 동연연구소, 1990). 656-7.

6) 남원지 편찬위원회 편, 「남원지」(남원: 남원시·군, 1992) 126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邊士貞. 桃灘集. 手書刻序: 崇禎後三戊子(1768)一之日 德殷宋煥箕序.

跋: 崇禎丙午(1666)三月日 不肖孫[邊]瑜感泣書. 庚午(?)六月上澣 不肖后孫[邊]漢克謹識. 庚午(?)六月上澣 不肖孫[邊]鍾旭謹識. 庚午(?)六月上澣 不肖后孫[邊]桂煥謹識.

### 3.2 교육기관

남원의 교육기관은 타 지방과 마찬가지로 향교와 서원을 들 수 있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때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이다<sup>7)</sup>.

조선의 서원은 그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중국의 서원이 관인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한 것과는 성격을 달리 하였다.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장수처이면서 동시에 향촌 사림의 취회소(聚會所)<sup>8)</sup>로 정치·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 3.2.1 향교

남원지방에 건립되었던 향교는 태조 이성계의 전국 향교 설치령에 의하여 태종 10(1410)년 건립된 남원향교와 태종 15(1415)년에 건립된 운봉향교가 있었다.

(1) 남원향교의 명륜당 서고에는 유학에 관한 많은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나<sup>9)</sup> 고종13(1876)년의 화재로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용성지(龍城誌)」학교조에 의하면 남원 향교에는 「중용」, 「대학」, 「논어」, 「맹자」 등의 사서류를 포함하여 41종의 서적명이 기록되어 있다.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향교조.

8) 상계서, 서원조.

9) 용성지, 권지삼, 학교조, 서책. 「중용(中庸)」, 「중용언해(中庸諺解)」, 「대학(大學)」, 「대학언해(大學諺解)」, 「논어(論語)」, 「논어언해(論語諺解)」, 「맹자(孟子)」, 「맹자언해(孟子諺解)」, 「시전(詩傳)」, 「서전(書傳)」, 「춘추(春秋)」, 「호전춘추(胡傳春秋)」, 「예기(禮記)」, 「맹자대문(孟子大文)」, 「혹문대학(或問大學)」, 「서정문(書正文)」, 「소학(小學)」, 「효경언해(孝經諺解)」, 「효경(孝經)」, 「심경부주(心經附註)」, 「주자절요(朱子節要)」, 「가례(家禮)」, 「강목(綱目)」, 「통감(通鑑)」, 「사찬(史纂)」,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고문진보(古文眞寶)」, 「선문칠영(選文酬英)」, 「부고서사(傳古書史)」,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 「동파(東坡)」, 「두시(杜詩)」, 「서악악부(西厓樂付)」, 「상례비요(喪禮備要)」, 「격몽요결(擊蒙要訣)」, 「정암집(靜菴集)」, 「추포집(秋浦集)」, 「제봉집(霽峯集)」, 「진영수어(震英粹語)」, 「백강집(白江集)」, 「죽서집(竹西集)」이 기록되어 있다.

(2) 운봉향교의 건립 연대는 불확실하나 태종 10년에서 15년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정유재란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소실되었으나 1981년 복원되었다.<sup>10)</sup>

### 3.2.2 서원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 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 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이다<sup>11)</sup>. 남원지방의 서원으로는 용장(龍章)서원, 창주(滄州)서원, 영천(寧川)서원, 노봉(露峰)서원, 용암(龍巖)서원, 요계사우, 고암사우, 두곡(杜谷)서원, 호암사(湖巖祠), 사동(仕洞) 서원, 풍계사(楓溪祠) 등이 있었다.

(1) 용장서원: 남원의 서원으로서 창건연대가 가장 이르며, 고려 충렬왕 28(1302)년 창건될 당시에는 용성사(龍城祠)로 되었다가 조선 태종 2(1402)년 용장서원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선조 30(1597)년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정조때 지금의 위치로 옮겨와 중건하였다<sup>12)</sup>. 고려 목종 때 김치양 일파의 난으로 은거한 동안 양능양(梁能讓)을 주벽으로 모시고 있다. 또 고려 원종때 삼별초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용성공에 봉해진 양주운(梁朱雲), 고려 말에 대사성을 지낸 김구용(金九容), 임진란 때의 공신 양대박을 봉안하고 있다.

(2) 창주서원은 선조 12(1579)년에 '고룡(古龍)서원'으로 창건되었으나 선조 33(1600)년 나라에서 '창주(滄州)'라는 현판을 내려 창주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노진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창주서원의 개명 이전인 고룡서원에는 고룡 유계에서 부터 소장되어 왔던 「노씨족보(盧氏族譜)」, 「문집」, 「예기」, 「맹자정문」이 있었다.<sup>13)</sup>

(3) 영천서원은 광해군 11(1619)년에 창건되었고, 안처순, 정환(丁煥: 1497~1540), 정황(丁橫: 1512~1560), 이대유(李大輿)의 4현을 모셨다. 숙종 12(1686)

10) 남원지, 남원지편찬위원회, 1992. 1136.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원조.

12) 남원의 문화유산, 105.

13) 용성지, 7장, 고룡서원조

년에 사액받았으며, 「가어(家語)」, 「주자절요」, 「예기」, 「고려사(高麗史)」, 「주례(周禮)」가 있었다.<sup>14)</sup>

(4) 노봉서원은 인조(1649)년에 창건되었으며, 숙종 23(1697)년에 사액받았다. 기묘사화에 사형을 받았던 홍순복(洪順福), 최상중, 오정길(吳廷吉), 최운(崔蘊: 1583~1659), 최휘지(崔徽之: 1598~1669)의 5현과 김인후가 봉안되었다.

(5) 요계사우(蓼溪祠宇)는 숙종 18(1692)년에 창건되었고, 김화(金澣), 이상형(李尙馨: 1585~1645), 김지순(金之純), 김지백(金之白: 1624), 안재도(安載道: 1637~?), 이상형(李尙馨: 1585~1645)도 배향되었다.

(6) 고암사우(高巖祠宇)는 숙종 18(1692)년에 창건되었고, 진극순(陳克純), 황신구(黃信龜), 한양오(韓養吾)가 봉안되었다.

(7) 두곡(杜谷)서원은 영조 42(1766)년에 창건되었고, 김인경(金仁鏡), 김선(金宣), 김충한(金沖漢), 신평익(申包臚), 유방택, 유백수 등이 배향되었다.

(8) 방산(方山)서원은 숙종 28(1702)년에 창건되었고, 배향 인물은 윤희손, 최연(崔衍: 1576~1651), 이경석(李景奭)이다.

(9) 호암사에는 이서(李舒: 1332~1410)를 주벽으로 삼고, 심구령, 안성(安省: 1352~1421), 소연(蘇沿: 1390~1441), 소산복(蘇山福: 1566~1630), 이당(李棠)이 배향되었다. 정조 13(1789)년에 지금 있는 자리로 옮기면서 호암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0) 사동서원에는 김치삼(金致三: 1560~1625)를 비롯한 김해김씨 일족들이 배향되었다. 1850년 「남원사동김해김씨종안」을 출판하였고, 1862년에는 「김해김씨대중계」를 출판하였다.

(11) 운봉의 용암(龍巖)서원은 숙종21(1695)년에 창건되었고, 변사정과 정몽주, 박광옥(朴光玉), 노형필, 황일호(黃一皓), 서식(徐湜)이 배향되었다.

(12) 풍계사는 방촌 황희(黃喜: 1363~1452)를 주벽으로 삼고, 두암(杜庵) 오상덕(吳尙德), 황위(黃暉: 1605~1654) 등 청렴과 절개, 학문으로 유명한 분들을 모셨다. 정조 12(1788)년에 건립하였다.

14) 상계서, 권지삼, 2장, 서원 신증.

#### 4. 남원 지방 전적문화 발달의 역사적 고찰

##### 4.1 문헌상의 고찰

우리나라에서 서적이 존재하였던 것은 “고구려에 『오경(五經)』과 『삼사(三史)』와 『삼국지(三國志)』가 있다”라는 『북사(北史)』의 기록과 백제 고이왕 51(284)년에 일본으로 서적을 보내준 사실<sup>15)</sup>을 밝히는 몇 가지 역사적 기록에서 알 수 있다. 남원은 백제에 속하였던 지역이었으므로 이미 그 당시에 서적의 간행과 유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된 자료는 없다.

인쇄출판문화 정책에 있어서 중앙 집중화 방식을 채택하였던 고려시대에 서적이 간행된 지방은 경주, 충주, 해주, 성주, 남원, 평양, 진주, 안동 등으로 간행지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인쇄출판 정책 하에서도 남원에서 서적을 간행하였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옛부터 인쇄출판문화에 있어서 선두적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역사기록에서 남원에서 서적을 출판한 사실은 고려 문종 이후에서 찾을 수 있다. 문종 2(1048)년 4월에 남원부사 이정공(李靖恭)이 새로이 판각한 『삼례도(三禮圖)』 54판과 『손경자서(孫卿子書)』 92판을 올려 비각에 두게 하고 각각 의대(衣帶)를 내려 후상하였다<sup>16)</sup>는 기록이며, 이들은 책판이었다.

조선은 고려조에서 이미 성행하였던 목판 인쇄 외에 활자 인쇄술이 발달되었던 시대였기에 인쇄출판물의 양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남원에서 시행되었던 출판 기록으로 가장 이른 것은 세조 10(1464)년에 간경도감에서 『보계달마사행론(菩提達摩四行論)』을 남원부에서 중수한<sup>17)</sup>

15) 增補文獻備考 藝文考, 歷代書籍條 總論

16) 鄭麟趾 等撰, 高麗史. 影印本, (서울: 한국학문헌연구소, 1983). 文宗 13年 4月 庚辰條. 知南原府事試禮部員外郎李靖恭 進新雕三禮圖五十四板·孫卿子書九十二板 詔置秘閣 仍賜衣帶.

17) 윤병태, 한국고서년표자료,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세조 10년 甲申(1464). 菩提達摩四行論 刊記: 天順八年甲申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於全羅道南原府重修.

것이다.

중종 13(1518)년 홍문관 박사였던 안치순이 모친의 봉양을 위해 구례현감으로 제수되어 떠날 때 인사차 인견한 임금에게 「근사록」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종은 “「근사록」은 선현의 긴요한 말씀이 수록된 책이니 한질을 가지고 가서 개간하여 다른 지방에 까지 반포하면 크게 유익할 것”<sup>18)</sup>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해인 중종 14년 여름에 구례에서 출판된 「근사록」의 간기<sup>19)</sup>에서 안치순은 부임하자마자 곧 출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종 33(1538)년 6월에 남원에서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이 목판으로 인출되었다.<sup>20)</sup>

명종 18(1563)년에는 곡성현에서 목판으로 개간한 「가례대전서」를 남원부에서 올린 기록<sup>21)</sup>이 있다.

선조 24(1591)년 남원부에서 윤현(1514~1578)의 「국려집(菊欄集)」이 출판되었다. 「국려집」은 조카인 윤안생(1542~1615)이 남원부사로 부임하자, 삼촌인 윤현의 유고를 수습하여 3권<sup>22)</sup> 책으로 편집하여 남원 고을에서 목활자를 구해서 인출한 것이다<sup>22)</sup>. 인행된 후에 임진난으로 산일되어 전래가 끊어진 것으로 일본으로 유출된 1질만이 일본 봉좌(蓬左)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옥영정의 “호남지방 목활자본 연구”에서 그는 「국려집」의 활자를 ‘남원 필서체 목활자’로 정하고 있다.<sup>23)</sup>

정유재란때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던 조정남이 선조 15(1585)년부터 인조 15(1637)년까지 57년간의 국내 중요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난중잡록」 10권 1책이 필사본으로 전해진다.<sup>24)</sup> 이 책의 가장 많은 부분인 임진난, 정유재란 기사

18) 중종실록. 13년. 2월 戊戌

19) 近思錄 刊記: “正德己卯夏鳳城精舍刊” 충남대소장. 갑인자복각본.

20) 윤병대, 한국고서년표자료,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중종33년 戊戌 “識…嘉靖戊戌春被召還朝同年夏承湖南之命入界信宿而到南原首以是編付通判李君希平使之更加讎校綴諸梓以廣其布云 嘉靖戊戌夏六月聞韶金正國國弼識”

21) 상계서, 명종 18년 癸亥. 家禮大全書. 卷末: 嘉靖癸亥谷城縣開刊南原上.

22) 옥영정, 호남지방 목활자본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24.

23) 상계서, 25.

24) 남원의 문화유산, 181.

와 그 밖의 선조시대의 기사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아 선조실록을 엮을 때 야사의 원본을 조정에서 빌려 가기도 하였다.

1598년 정유재란 이후 그 전쟁 중 남원성 싸움을 소재로 쓴 소설 「홍도전」과 「최척전」이 있다. 이 「홍도전」은 900여자로 된 한문체의 소설인데 전쟁이 끝난 후 13년이 지난 1612년 당시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를 남원 부사 유몽인이 그의 저서 「어유야담」 인륜편 효열조에 기록함<sup>25)</sup>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최척전」은 1621년 당시 남원 주포방(주생면)에 살고 있던 조위한(趙緯韓)이 지은 한문체 고전 소설로서 정유재란 당시 중군하였던 최척과 옥영이라는 부부가 겪은 실제 이야기를 가탁기법으로 엮은 것으로 기우록에 전해오는 것이다.<sup>26)</sup>

광해군 2(1610)년 장악원 악사로서 비파와 거문고의 명인이었던 양덕수(梁德壽)는 거문고 악보집인 「양금신보(梁琴新譜)」 1책(26장)을 목판으로 인출하였다. 그는 당시 임난을 피해 고향인 남원으로 피난하면서 남원지방에서 불러지던 가곡들을 채록하여 거문고 악보로 만들고 그의 친구였던 임실현감 김두남의 도움으로 출판하였던 것<sup>27)</sup>이다.

숙종 28(1702)년 봄에 남원부사인 이구징의 독려로 이도와 최여천이 「용성지」 초간본을 간행하였다. 용성지는 숙종 25(1699)년 겨울에 시작하여 1702년에 완성되었으나 토지, 물산, 산천, 형승이 너무 간략하고 상세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조 28(1752)년에 「용성지」를 다시 간행하였는데, 한상기(韓尙箕), 최처항(崔處恒), 이유정(李惟精), 이광(李光) 등이 참여하여 목활자로 인출하였다.

영조 15(1739)년 곡성 도림사(道林寺)에서 「범음산보집(梵音刪補集)」, 「범음집(梵音集)」, 「천지명양수륙제의(天地冥陽水陸齋儀)」를 중간하였다.<sup>28)</sup>

정조 10(1786)년 남원 운봉현에서 「순창설씨족보(淳昌薛氏族譜)」 5책을 목활

25) 상계서, 245.

26) 상계서, 246.

27) 윤병태, 한국고서년표자료, 권말: 刊記 任實縣開刊(?) …< 遂綴之梓名曰梁琴新譜萬曆庚戌(以下缺)>. 남원의 문화유산 217-218.

28) 윤병태, 한국고서년표, 영조 15년. 기미조.

자로 인출하였다. 이 족보는 1749년 고창에서 인행한 기사보(己巳譜)의 속간인 병오보(丙午譜)로써 인행된 것이다.<sup>29)</sup>

정조 21(1797)년에 「양대사마실기」가 정조의 명으로 목판본으로 출판되었다. 정조가 양대박과 그의 아들들의 문집을 보고 “이 사람이 임란에 당하여 의병을 일으킨 것은 사후에 영상(領相)을 추증 받은 고정명보다 앞섰고, 영단은 충무공 이순신보다 나으며, 목숨을 바쳐 국난에 충성한 것은 두 사람과 같다. 그가 남긴 문집을 읽어보니 늙름한 기상이 솟아나기를 마치 그가 말 위에 올라 적을 무찌르고 말에서 내려 격문을 쓰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고 하면서 그의 시문집인 「청계집(淸溪集)」과 「창의록」을 전라도 관찰사에게 보내 그 곳에서 간행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던 것이다. 정조의 명<sup>30)</sup>에 따라 간행된 양대박 3부자의 문집인 「양대사마실기」는 11권 5책으로 중군일기와 「운암파왜도기(雲岩破倭圖記)」, 「청계집」, 「제호집」, 「동애집」, 가장(家狀)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들은 출판된 후에 내각과 사고에 보관하였다.

정조 23(1799)년에 노봉서원에서 「노봉서원유현록(露蜂書院儒賢錄)」 2권1책을 목활자로 인행하였고,<sup>31)</sup> 1800년의 발문이 있는 「대방세고」<sup>32)</sup>도 출판하였다.

순조 2(1802)년 남원 운봉현 실상사에서 「밀양손씨세보(密陽孫氏世譜)」 8권 8책을 목판으로 인행하였다.<sup>33)</sup> 이것은 개인 집안의 족보이지만 인쇄의 인력이 풍부한 사찰에서 출판을 대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염(丁焯: 1524-1609)의 시문집인 「만헌집(晩軒集)」 4권2책이 1805년에 지갯다리회 인서체자목활자로 인출되었다.<sup>34)</sup>

29) 옥영정, 전계서. 56.

30) 정조실록, 20년 8월辛巳. 辛巳. 弘齋全書. 卷173권 日得錄 13. 人物 3.

31)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露蜂書院儒賢錄. 跋: 崇禎後三己未(1799) …崔翊孝.

32)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帶方世稿 / 崔是翁(朝鮮) 編. 跋: 歲甲午(1714)八月下浣 曾孫[崔]是翁謹識. 崇禎紀元後三庚申(1800)十月下浣 七世孫 崔翊孝敬書

33)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密陽孫氏族譜. 刊記: 崇禎紀元後三壬戌(1802) …雲峰實相寺印出.

3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晩軒先生文集 序: 崇禎後三乙丑(1805) …宋煥箕序, 跋: 崇禎後旆蒙赤奮若(乙丑, 1805) …[丁]錫龜謹書.

순조 8(1808)년에 성균관의 요청으로 존경각에 비치할 서적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도 각 읍증 판본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서적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때 남원에서는「예기」와 「역학계몽」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sup>35)</sup>

임진란때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였던 변사정의 문집인 「도탄집」 3책이 순조 10(1810)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sup>36)</sup> 이대유의 시문집인 「활계선생유고(活溪先生遺稿)」 1책이 순조 22(1822)년에 목활자로 간행되었다.<sup>37)</sup>

순조 33(1833)년에는 「함양오씨족보(咸陽吳氏族譜)」를 운봉에서 인출하였고,<sup>38)</sup> 현종 12(1846)년 남원 운봉현에서도 「순창설씨족보(淳昌薛氏族譜)」 5책<sup>39)</sup>이 간행되었다.

현종 11(1845)년에는 고령유계에서 「풍천노씨세보(豊川盧氏世譜)」<sup>40)</sup>를 인행하였다.

사동서원에서는 철종 1(1850)년 「남원사동김해김씨종안」<sup>41)</sup>을 출판하였고, 1862년에는 「김해김씨대종계」<sup>42)</sup> 1책(23장)을 출판하였다.

35) 「日省錄」, 純祖 8년 5월 12일 丁未

成均館以尊經閣所貯書籍行會印出啓 本館啓言輪對官司成金啓河所懷判付內泮長草記稟處後行事命下矣取考其所懷則以爲尊經閣所貯書籍盡爲遺失餘諸者無幾令大司成抄出性理諸書我東文集之不可不備者令各道 各邑板本所在處印出上送云矣經傳及性理諸書中最緊切者從略抄出別單啓下後行會各道知委列邑並各印送 藏置閣中以資多士之講習則庶或有補於培養作成之方以此措辭發關待印送齊到草記以聞 別單七書俱解皇極近思錄潭陽禮山…禮記易學啓蒙南原…

36)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변사정, 挑灘先生集, 表題: 挑灘集. 序: 崇禎後三戊子(1768)…宋煥箕. 跋: 庚午(?)…[邊]圭煥 謹識.

37)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李大柳, 活溪先生遺稿. 序: 崇禎紀元後丁酉(1657)…李根. 跋: 崇禎四壬子(1882)…宋釋圭.

38)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咸陽吳氏族譜, 刊記: 癸巳(1833)…孟夏雲峰縣花水山重刊

39) 성균관대학교, 고서목록, 淳昌薛氏族譜, 刊記: 聖上十二年丙午(1846)八月日雲峯縣開刊 都有司薛國翰等三人, 典梓薛國儒等三人, 校正薛匡英等三人, 監印薛世圭等二人

40)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盧鍾漢編, 豊川盧氏世譜. 南原: 古龍柳溪, 憲宗11(1845) 序跋: 崇禎四 乙巳(1845), 標紙面丙 亥 免(1843)古龍永活印.

41) 원광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 南原社洞金海金氏宗案, 序: 崇禎紀元後四己酉(1849)丁 昌夾.

跋: 庚戌(1850)金國洛

42) 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 고서목록. 金海金氏大宗契.

철종 6(1855)년 8월에 남원 운성현에서 조존덕이 그 선인의 유적인 「우군간독(일명 왕우군서)」을 목판본으로 간인하였다<sup>43)</sup> 조존덕은 갑인년 7월에 부임하여 병진년(1856) 정월에 함경도 성진첨사로 떠났기<sup>44)</sup> 때문에 간행 연대는 1855년으로 추정된다.

철종 8(1857)년에는 유동연(柳東淵, 1613 ~ 1681)의 시문집인 「남간집(南澗集)」 3권2책이 목활자로 인출되었다.<sup>45)</sup> 또 같은 해에 유호(柳灝, 1576 ~ 1644)의 시문집인 「뢰천집(磊川集)」 4권1책이 목활자로 인출되었다.<sup>46)</sup>

임진란 당시에 많은 활약을 한 김복흥(金復興 1546 ~ 1604)의 시문집인 「계곡집(谿谷集)」이 활자본으로 전해진다. 이는 1761년에 오한원이 쓴 서문과 1840년 8대손 수범이 쓴 발문<sup>47)</sup>으로 출판연대는 19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남원부의 생원 진사시 합격자 명단인 「대방부사마안(帶方府司馬案)」 1책이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연대는 고종 1년 갑자(1864)년 까지의 합격자를 수록한 것으로 보아 1864년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sup>48)</sup>

고종 13(1876)년에도 「함양오씨족보」 9책이 금남재에서 중간되었고,<sup>49)</sup> 고종 19(1882)년에는 김선의 문집인 「백출집(百拙集)」 4권1책이 목활자로 인출되었다.<sup>50)</sup>

刊記: 崇禎紀元後四壬戌(1862)孟春 南原社洞書院開刊  
序: 崇禎紀元後四丁巳(1857)九月下澣…洪鍾應敘

- 43) 윤병태교수는 한국서지연표에서 숙종 원년(1675) 乙卯 8월 1일에 간인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雲城誌 坤 권지삼의 邑侯案에 의하면 조존덕은 철종 5(1854)년 갑인년 7월에 운성현에 부임하여 병진년(1856) 정월에 함경도 성진첨사로 떠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을묘’는 철종 6(1855)년에 해당된다.
- 44) 「雲城誌」. 남원군: 1994. 坤, 3권. 政事誌. 邑侯案. “趙存德. 居南浦 甲寅七月到任丙辰正月移拜威鏡城津僉使.”
- 45)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柳東淵(朝鮮) 著. 南澗先生集. 表題 및 版心題: 南澗集 後書: 崇禎後四周甲丁巳(1857)閏月中浣 傍六世孫[柳]道顏攬涕而識.
- 46) 서울대학교 규장각. 柳灝 著. 磊川處士集. 표지서명: 磊川集. 序: 崇禎四丙辰(1856)…奇正鎮. 跋: 崇禎四丁巳(1857)…宋達洙撰
- 47) 남원지, 1258.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谿谷先生遺稿. 표지서명: 谿谷集. 관심서명: 谿谷集. 序: 崇禎紀元後三 辛巳(1761)…吳翰源. 跋: 崇禎四庚子(1840)…八代孫守範.
- 48)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전주: 동원연구소, 1990). 1052.
- 49)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威陽吳氏族譜. 序…上之13년(1876)…[吳]璋憲 印記 丙子(1876)九…月日南原錦南齋重刊.

이한응(李漢應: 1778~1864)의 문집인 「경암선생문집(敬菴先生文集)」<sup>51)</sup>이 고종 22(1885)년에 후학들에 의해 목판본으로 출판되었다.

임진란때 창의하였던 김천일(1537~1573)의 문집인 「건재선생문집(健齋先生文集)」이 고종 30(1893)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sup>52)</sup>

고종 32(1895)년에는 김지백의 「담허재집(澹虛齋集)」 6권3책이 목활자로 인출되었으나 발행소는 미상이며, 현전되는 것은 1책(영본)으로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sup>53)</sup>

학행으로 이름이 있었던 양달교(梁達敎 1794~1876)의 문집인 「면재유고(勉齋遺稿)」 1책(57장)이 이용진과 정상현의 서문과 이풍호의 발을 붙여 목활자로 간행되었으며, 간행연대는 1900년대로 추정하고 있다.<sup>54)</sup>

20세기에는 보다 많은 서적이 출판되었으며, 특히 한집안의 족보, 문집이나 실기 등이 많았다. 계보에 관한 서적으로는 「진주소씨족보(1906년)」<sup>55)</sup>와 남원향족의 명부인 「대방향안(帶方鄉案)」 1책이 있다. 「대방향안」은 역대 남원향족의 명부를 합쳐 만든 것으로, 간행연도는 1901년으로 추정<sup>56)</sup>하고 있다.

문집이나 실기류에는 1902년 용동에서 편찬된 김감(金鑑)의 「입택집(笠澤集)」과 같은 해에 인행된 조경남의 문집인 「산서집(山西集)」도 있다.

광무 9(1905)년 화순 최씨 최상문을 비롯한 7인의 시문을 모은 책인 「오성세고(烏城世稿)」 13권 3책이 목활자로 인출되었다.<sup>57)</sup> 1907년에 출판된 황위의 문집인

50)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金宣 著. 白拙先生集. 表題: 百拙集. 序: 崇禎五歲回壬午(1882)…宋秉璿

51) 성균관대학교, 고서목록. 敬菴先生文集. 卷13 附錄末: 歲辛己(1881)臘月下澣門人李晚按謹跋. 卷13附錄末: 上之二十三年乙酉(1885)廣華節後學載寧李秀榮謹撰

52) 고려대학교도서관, 고서목록, 金千鎰(朝鮮) 著 健齋先生文集.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高宗4(1867)序: 崇禎五丁卯(1867)正月丁卯幸州奇正鎮謹序舊序: 崇禎三壬戌(1802)日南至清風后人金世淵謹序 [書]: 純祖大王十二年壬申(1812)…幸州奇宇萬謹書.

53)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澹虛齋集, 高宗 32(1895)년 刊稿事實: 上之32年乙未(1895)…金洛麟.

54)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勉齋遺稿

55)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晉州蘇氏族譜, 蘇 龜永 等編. 刊記: 崇禎紀元後五周丙午(1906)五月日開刊于南原霽開月齋舍 (<http://www.yonsei.ac.kr/service/digital.html>)

56) 남원지, 1264.

「당촌집(塘村集)」<sup>58)</sup> 7권3책이 있고, 1908년에 간행된 황신구의 「운계집(雲溪集)」<sup>59)</sup> 이상형의 문집인 「천묵재집(天默齋集)」 6권3책도 1908년에 인출되었다.<sup>60)</sup>

## 4.2 책판목록 상의 고찰

남원지방 목판본의 인쇄출판 상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고사촬요」<sup>61)</sup> 책판목록, 「누판고」<sup>62)</sup>, 「완영책판목록」<sup>63)</sup>, 「고책판유처고」<sup>64)</sup>, 「책판치부책」<sup>65)</sup>, 「제도책판록」<sup>66)</sup>, 「각도책판목록」<sup>67)</sup>, 「영호열읍소재책판목록」<sup>68)</sup>, 「삼

- 57) 성균관대학교. 고서목록. 崔翼浩 編. 烏城世稿. 序: 歲乙巳(1905)季夏幸州奇宇萬謹書. 跋: …活字印出始役於乙巳四月越十月戊辰工告訖…乙巳(1905)十月小晦十代孫重燮 謹識.
- 58) 성균관대학교. 고서목록. 黃暉. 塘村集. 序: 崇禎五周壬辰(1892)清明日.. 恩津宋近洙序. 跋: 崇禎後五周己亥(1899)二陽月幸州奇宇萬謹書. 跋: …乃以今年秋始付手民… 丁未(1907)立秋日八世孫孫玟謹跋.
- 59)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黃信龜. 雲溪集. 10卷5冊. 序: 癸巳(1713)…權尙夏. 跋: 崇禎紀元後五戊申(1908)…李倬儀.
- 60)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李尙馨. 天默先生遺稿. 6卷3冊. 序: 崇禎紀元後五壬辰(1907)…宋炳璿. 跋: 歲崇壬寅(1902)…奇宇萬/歲丁未十紀二月上澣(1907)…黃世顯.
- 61) 「고사촬요(故事撮要)」는 명종 9(1554)년에 어숙권(魚叔權)이 편찬한 유서로서 임진왜란 이전 판본의 권하(卷下)에는 “팔도정도(八道程途)”에 책판에 대한 기록이 있다. 선조 1(1568)년 을해자본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선조 18(1585)년 고사촬요 책판목록에서 찾을 수 있다.
- 62) 「누판고(鑊板考)」는 정조의 명으로 서유구가 편찬한 것으로 서울의 판아와 팔도 감영과 각 부(府), 목, 군, 현, 서원, 사찰, 사가에 장치되어 있던 책판을 조사한 것이다.
- 63) 「완영책판목록(完營冊版目錄)」은 영조 35(1759)년 2월에 전라감영에서 임금에게 올린 것으로 필사본 1책 50장이다. 전라, 충청, 경상 함경 등 각도의 감영과 각 고을에 보존되어 있던 책판을 조사한 기록이다.
- 64) 「고책판유처고(古冊版有處攷)」는 편자 미상으로 해동지지 속에서 책판만을 기록한 것을 추려서 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동지지는 표암 강세황이 돌아간 영조 52(1776)년 이전에 편찬된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책판의 성립은 그 때를 전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65) 「책판치부책(冊版置簿冊)」은 영조 16(1740)년경에 필사한 사본으로 137장1책이다. 내용은 전라도 등 7개도의 고을별 책판목록이다.
- 66) 「제도책판록(諸道冊版錄)」은 영조 25(1750)년 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34장 1책의 필사본이다. 편자는 미상이며, 전라, 충청, 경상 및 함경도 등 4개도의 책판목록이다.
- 67) 「각도책판목록(各道冊版目錄)」은 편자 미상으로 정보 2(1778)년 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

남소장책판」,<sup>69)</sup> 「책판록」,<sup>70)</sup> 「임원십육지」,<sup>71)</sup> 「책판록」<sup>72)</sup> 등이 있다.

이들 문헌목록과 「용성지」, 「남원지」 등의 문헌자료에서 남원지방에 소장되었던 목판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가례」, 「가례대전서」, 「가어(家語)」, 「간이방」, 「강목」, 「격몽요결」, 「경민편(警民編)」, 「경암선생문집(敬菴先生文集)」, 「계몽주역」, 「계주문(戒酒文)」, 「고려사」, 「고문진보」, 「구급간이방」, 「근사록」, 「난정기」, 「논어」, 「논어언해」, 「집주논어」, 「눌재집」, 「담해록(潭海錄)」, 「대명률(大明律)」, 「대천자(大千字)」, 「대학」, 「대학언해」, 「도정절집(陶靖節集)」, 「동인시화(東人詩話)」, 「동파」, 「두시」, 「등왕각서」, 「마애비(磨崖碑)」, 「매현실기」, 「맹자」, 「맹자대문」, 「맹자대전」, 「맹자언해」, 「맹자정문」, 「맹호연집(孟浩然集)」, 「무원록(無冤錄)」, 「밀양손씨세보」, 「박물지(博物志)」, 「백강집」, 「백씨문집(白氏文集)」, 「백자천자(白字千字)」, 「범음산보집」, 「범음집」, 「병학지남」, 「보제달마사행론」, 「사찬」, 「삼강행실(三綱行實)」, 「상례비요」, 「쌍계석문(雙溪石門)」, 「서애약부」, 「서전」, 「서정문」, 「선문철영」, 「성묘어서(成廟御書)」, 「성학십도」, 「소학」, 「소홀책」,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 「송명신언행록」, 「송조명신록(宋朝名臣錄)」, 「시운석의(詩韻釋義)」, 「시전(詩傳)」, 「심경부주」, 「양금신보」, 「양대사마실기」, 「양생대요(養生大要)」, 「언해정속(諺解正俗)」, 「역학계몽」, 「연원록(淵源錄)」, 「예기」, 「왕휘지초서(草書)」, 「용성지」, 「우군간독」, 「우주일람도(宇宙一覽圖)」, 「원감집(圓鑑集)」, 「위소주집(韋蘇州集)」, 「이도대명율(吏

되고 있다.

- 68) 「영호열읍소재책판목록(嶺湖列邑所在冊版目錄)」은 영조 36(1760)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두 도의 책판목록이다.
- 69) 「삼남소장책판(三南所藏冊版)」은 편자 미상의 사본으로 1책20장본이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 3개 도의 책판목록으로 영조 19(1743)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70) 「책판록(冊版錄)」은 편자 미상으로 주로 전라도 지역의 고을별로 책판을 기록한 목록이다. 편찬 연대는 정조 초로 추정하고 있다.
- 71)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는 서유구가 편찬한 것으로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권106 이운지(怡雲志) 7에 있는 “도서장방(圖書藏訪)” 속에 있는 “경외루판(京外鑊板)”에서 책판의 존재를 알 수 있다.
- 72) 「책판록(冊版錄)」은 편자를 알 수 없는 필사본이며, 32장 1책으로 되어 있다. 남권희 교수 소장본으로 「경상도각읍소재책판」과 「전라도소재각읍책판」의 합책이다.

道大明律), 「이락연원록후집(伊洛淵源錄後集)」, 「이륜행실(二倫行實)」, 「이학류편(理學類編)」, 「장여필초서(張汝弼草書)」, 「장자(莊子)」, 「적벽부(赤壁賦)」, 「정암집」, 「제봉집」, 「조선부(朝鮮賦)」, 「조선지도(朝鮮地圖)」, 「주례」, 「주역(周易)」, 「주역대전(周易大全)」, 「주역언해(周易諺解)」, 「주자절요」, 「죽서집」, 「중용」, 「중용언해」, 「진영수어」, 「진초서천자(眞草書千字)」, 「천지명양수륙제의」, 「청구역대국도(靑丘歷代國圖)」, 「초당집(草堂集)」, 「초서대판(大板)」, 「초서천자(草書千字)」, 「촌가구급」, 「촌가구급방」, 「추포집」, 「춘추」, 「통감」, 「팔도지도(八道地圖)」, 「학음고(學音考)」, 「학음집(學音集)」, 「한문(韓文)」, 「한호천자(韓護千字)」, 「향산삼체시(香山三體詩)」, 「해동명적(海東名跡)」, 「향약집성방」, 「호전춘추」, 「혹문대학」, 「효경대의」, 「효경언해」 등 총 118종이 있었다.

## 5. 출판된 문헌의 분석

「조선왕조실록」, 「용성지」, 「남원지」, 「운성지」 등의 역사적 문헌기록에서 확인되거나 책판 목록에 수록된 문헌 중에서 동일한 서적을 제외하면 조사 대상의 문헌은 목판본이 118종, 목활자본이 34종으로 총 152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존본과 각종 문헌에서 남원지방에서 발행된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목판본 19종과 활자본 34종으로 총 53종이다.

주제별 분석에서는 총 152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시대별, 발생소별, 저술자 및 발행자 분석에서는 53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5.1 주제별 분석

책판목록이나 역사 기록물, 「용성지」, 「남원지」 등에 수록되었던 문헌들로서 직접적인 간행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지라도 당시 남원지방에서 유통되었던 문헌이라는 점에서 주제별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1> 주제별 분석

주제		목판본	활자본	계	
		종수 (비율)	종수 (비율)		
경	역류	4 (3.4%)	-	4 (2.6%)	
	서류	2 (1.7%)	-	2 (1.3%)	
	시류	1 (0.8%)	-	1 (0.7%)	
	예류	5 (4.2%)	-	5 (3.3%)	
	춘추류	2 (1.7%)	-	2 (1.3%)	
	효경류	2 (1.7%)	-	2 (1.3%)	
	사서류	13 (11.0%)	-	13 (8.6%)	
	소학류	5 (4.2%)	-	5 (3.3%)	
	계	34 (28.8%)	-	34 (22.4%)	
사	정서류	1 (0.8%)	-	1 (0.7%)	
	편년류	2 (1.7%)	-	2 (1.3%)	
	별서류	1 (0.8%)	-	1 (0.7%)	
	잡서류	1 (0.8%)	-	1 (0.7%)	
	전기류	6 (5.1%)	-	6 (3.9%)	
	보계류	1 (0.8%)	14 (41.2%)	15 (9.9%)	
	지리류	4 (3.4%)	1 (2.9%)	5 (3.3%)	
	정법류	3 (2.5%)	1 (2.9%)	4 (2.6%)	
	금석류	1 (0.8%)	-	1 (0.7%)	
	계	20 (17.0%)	16 (47.1%)	36 (23.7%)	
자	유가류	15 (12.7%)	-	15 (9.9%)	
	도가류	1 (0.8%)	-	1 (0.7%)	
	석가류	4 (3.4%)	-	4 (2.6%)	
	병가류	1 (0.8%)	-	1 (0.7%)	
	의가류	4 (3.4%)	-	4 (2.6%)	
	천문산법류	1 (0.8%)	-	1 (0.7%)	
	예술류	서화	9 (7.6%)	-	9 (5.9%)
		음악	1 (0.8%)	-	1 (0.7%)
	유서류	1 (0.8%)	-	1 (0.7%)	
		계	37 (31.4%)	-	37 (24.3%)
집	총집류	4 (3.4%)	2 (5.9%)	6 (3.9%)	
	별집류	20 (16.9%)	16 (47.1%)	36 (23.7%)	
	시문평류	3 (2.5%)	-	3 (2.0%)	
	계	27 (22.9%)	18 (52.9%)	45 (29.6%)	
총 계		118	34 (100.0%)	152 (100.0%)	

남원 지방에서 출판되었거나 유통되었던 152종의 문헌들을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의 사부 분류 개수법에 따라 해당하는 주제의 류문을 표시하여 구분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주제별 분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목판본의 경우는 전체적인 면에서 경사자집에 걸쳐 각 주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이다. 그러나 활자본에서는 집부가 가장 많고, 사부와 자부가 그 다음이다. 그러나 류목에서는 집부의 별집류와 사부 보계류에 편중되고 있어 유학자들의 가문 중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또 하나의 두드러진 점은 자부 예술류 서화지속의 문헌이 다수 발행된 것으로, 이는 당시 사회에서 서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5.2 시대별 분석

조사대상 문헌인 목판본 19종과 활자본 34종을 조선의 통치 시기인 1401년부터 1910년 까지 제한하여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2> 시대별 분석

년대	목판본 (%)	활자본 (%)	계 (%)
14세기	1 (5.3%)	-	1 (1.9%)
15세기	-	-	-
16세기	3 (15.8%)	1 (3.0%)	4 (7.5%)
17세기	4 (21.1%)	-	4 (7.5%)
18세기	6 (31.6%)	2 (5.9%)	8 (15.1%)
19세기	5 (26.3%)	19 (55.9%)	24 (45.3%)
20세기	-	12 (35.3%)	12 (22.6%)
계	19(100.1%)	34 (100.1%)	53 (99.9%)

간행된 시대별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근세로 오면서 출판양이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 19세기가 가장 많은 24종(45.3%)이고, 20세기가 12종(22.6%), 16세

기와 17세기는 4종(7.5%)이다. 그러나 18세기를 전후하여 출판 양상이 다소 다른 점이다. 즉, 목판본은 14세기에 1종이 출판되었고, 16세기에 3종이, 17세기에 4종이, 18세기에 6종이 출판되었다. 그에 비해 활자본은 16세기에 1종이, 18세기에 2종이 출판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목판본은 19세기에 5종이며, 20세기에는 전혀 출판되지 않고 있다.

목활자본은 19세기와 20세기에 각각 19종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세기의 출판량은 불과 10년 동안의 출판량이 19세기의 1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출판량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출판량이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나타는 것이다.

### 5.3 발행소 분석

현존본과 문헌 상에서 남원지방에서 발행된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목판본 19종과 활자본 34종으로 총 53종이다. 이를 중심으로 발행자를 살펴보았다. 조선조 전기에는 주로 목판본의 출력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8세기 중반부터는 목활자본이 많이 대두되었다.

남원지방의 문헌을 발행할 수 있었던 곳은 관아(官衙), 재실(齋室), 서원(書院), 사찰, 향교, 사우(祠宇), 사가(私家) 등으로 다양하다.

<표 3 발행소 분석>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행소 미상이 가장 많은 20종(37.7%)이고, 그 다음은 관아가 17종(32.1%)이다.

문헌을 발행한 기관에서 판중에 따른 차이가 있다. 즉, 목판본은 다수인 68.4%가 관아에서 발행되었고, 21.1%는 사찰에서 발행되었다. 그러나 활자본은 발행소 미상이 가장 많으며, 대부분 개인의 문집(44.0%)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남원부에 부임한 관리들이 그들의 선조가 저술한 문헌을 관아에서 발행한 것과 서원에서 배향자와 관련되는 문헌을 발행한 것이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주로 족보를 발행하였던 보소와 재실이다.

<표 3> 발행소 분석

발행소	목판본 (%)	활자본 (%)	계 (%)
관아	13 (68.4%)	4 (11.8%)	17 (32.1%)
서원	-	4 (11.8%)	4 (7.5%)
사찰	4 (21.1%)	-	4 (7.5%)
제실	-	5 (14.7%)	5 (9.4%)
보소	-	3 (8.8%)	3 (5.7%)
미상	2 (10.5%)	18 (53.9%)	20 (37.7%)
계	19 (100%)	34 (100.1%)	53 (99.9%)

#### 5.4 편저자와 발행자 분석

조사 문헌의 편저자와 발행자의 분석에서 몇가지 주목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남원지방에 부임한 관리들이 그들의 선조의 문집을 후손으로서 발행하는 것이다. 윤현의 문집인 「국려집」을 남원부사로 부임하였던 조카 윤안성이 발간하였던 것과 같이 남원 지방의 관아에 부임한 관리가 그들의 선조나 집안 어른의 문집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예에 속하는 것은 숙종 10(1684)년에 아들인 호남안찰사인 이사명이 부친 이연적의 문집인 「죽서집」과 외조부인 황신의 시문집인 「추포집」을 간행한 경우이다. 운성현에서 조존덕이 「우군간독」을 간행한 것도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남원의 세가에서 그들의 선조 문집이나 족보를 발행하는 것이다. 삭영 최씨 집안인 최익효가 「노봉서원유현록」을 편집하였고, 최시용은 「대방세고」를 편집하였다. 남원사동의 김해김씨 일족들은 「사동서원김해김씨종안」, 「김해김씨 대종계」 등 가문에 관련되는 것들을 발행하였다. 「함양오씨족보」, 「순창 설씨족보」, 「풍천노씨세보」는 각각의 집안에서 족보를 발행한 경우에 속한다.

세 번째는 남원지방의 서원이나 사우 등에 배향된 인물들이 간행된 문헌의 저자들이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당촌집」의 황위는 풍계사에 배향되어 있고, 「천목재집」의 이상형과 「담허재집」의 김지백은 요계향사에 배향되었다. 「운계집」의 황신구도 고암서원에 배향되었다. 「활계선생유고」의 저자인 이대유도 영천서

원에 배향된 인물이다. 대방세고』의 저술자인 최상중, 최은, 최희지, 최유지 등 삭영 최씨들은 노봉서원에 배향되었다.

네 번째는 임진란, 병자호란 및 내란 때 국가를 위해서 창의활동을 한 남원지방의 명유들이다. 임진란때 의병활동을 한 인물은 『도탄집』의 변사정, 『간재선생문집』의 김천일, 『산서집』의 조경남, 『운계집』의 황신구, 『양대사마실기』의 양대박, 『만현집』의 정엄, 『계곡집』의 김복홍 등이 이에 속한다. 병자호란때 의병 활동을 한 인물은 『천목재집』의 이상형, 『대방세고』의 저술자들인 최은, 최위, 최연, 최희지 등과 『당촌집』의 황위가 이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다섯번째는 다수의 저자들은 남원지방에서 문장과 학행으로 이름난 명현들이었다. 『눌재집』의 양성지를 비롯하여 『용성지』의 인물조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로서 곡성현에서 『근사록』을 간행한 안처순, 『남간집』의 유동연, 『퇴천집』의 유호, 『대방세고』의 최연, 『백강집』의 이경여 등을 들 수 있다

## 6. 결 론

조사 대상의 문헌은 목판본이 118종, 목활자본이 34종으로 총 152종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존본과 문헌 상에서 남원지방에서 발행된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목판본 19종과 활자본 34종으로 총 53종이다.

주제별 분석에서는 총 152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시대별, 발생소별, 저술자 및 발행자 분석에서는 53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제별 분포에서 집부가 45종(29.6%)로 가장 많고, 자부가 37종(24.3%), 사부가 36종(23.7%), 경부가 34종(22.4%)이다. 판종에서 목판본은 경사자집에 걸쳐 각 주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활자본은 집부의 별집류와 사부 보계류에 편중되고 있으며, 자부 예술류 서화지속의 문헌이 많다

2) 시대별 분석에서 19세기가 가장 많은 24종(45.3%)이고, 20세기가 1종

(22.6%), 16세기와 17세기는 4종(7.5%)이다. 판종별에서 목판본은 14세기에 1종, 16세기에 3종, 17세기에 4종, 18세기에 6종, 19세기에 5종이 출판되었다. 활자본은 16세기에 1종, 18세기에 2종, 19세기와 20세기에 각각 19종이다.

3)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행소 미상이 가장 많은 20종(37.7%)이고, 그 다음은 관아가 17종(32.1%)이다. 판종별에서 목판본은 다수인 68.4%가 관아에서 발행되었고, 21.1%는 사찰에서 발행되었다. 그러나 활자본은 발행소 미상인 문헌이 가장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개인들의 문집(44.0%)이다. 두번째로 많은 것은 남원 부에 부임한 관리들이 그들의 선조가 저술한 문헌을 관아에서 발행한 것과 서원에서 배향자와 관련된 문헌을 발행한 것이다.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주로 족보를 발행하였던 보소와 재실이다.

4) 편저자 및 발행자의 분석에서 (1) 남원지방에 부임한 관리들이 선조의 문집을 발행하는 것, (2) 남원의 세가에서 그들의 선조 문집이나 족보를 발행하는 것, (3) 서원이나 사우 등에 배향된 인물들의 저술을 발행하는 것, (4) 전란때 창의한 인물들의 저술인 경우, (5) 다수의 저자들은 남원지방에서 문장과 학행으로 이름난 명현들이었다.

#### <참고문헌>

龍城誌 .

雲城誌 . 남원군: 1994.

日省錄 .

鄭麟趾 等撰, 高麗史. 影印本. 서울: 한국학문헌연구소, 1983.

增補文獻備考 藝文考,

朝鮮王朝實錄.

건설부 국립지리원. 「한국지지」 지방편 IV(광주 전북 전남 제주), 1986.

고려대학교도서관. 고서목록.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남원문화원. 남원의 문화유산 2001.

남원지. 1960.

남원지편찬위원회 편. 남원지. 남원: 남원시·군, 1993.

남원향교 편. 남원지. 남원: 남원향교, 1959.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서목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전라도읍지. 규장각자료총서지리지편.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성균관대학교. 고서목록.

송준호교수정년기념논총, [전주]: 송준호교수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7.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영남대학교 고서목록.

옥영정, “호남지방 목활자본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雲城誌. 남원군: 1994.

원광대학교 도서관.

윤병태. 한국서지년표.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윤병태. 한국고서년표자료.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전남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

전라북도 향교재단. 전북향교원우대관. 서울: 이회문화사, 1994.

전북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전라문화의 맥과 전북인물. 전주: 동연구소, 1990.

전주대학교 도서관. 고서목록.

정형우·윤병태 편. 한국의 책판목록. 서울: 보경문화사, 1995.

충남대학교 고서목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전자도서관.

남원 지역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부록 1. 남원 지방의 목활자본 소장처

번호	서명	편저자	발행소	발행년	책수	소장처
1	菊淵集	윤현	남원부	1591년	3권 2책	일본봉곡문고
2	용성지		"	1752		고대, 영남대, 원광대, 전주대, 국립, 국사편찬
3	晩軒集	정엄	-	1805년	4권2책	국립, 연대
4	淳昌薛氏族譜	薛國翰	운봉현	1846년	5책	국립, 성대
5	露蜂書院儒賢錄	崔翊孝	노봉서원	1799	2권1책	국립
6	帶方世稿	최상중, 최행, 최취지, 최유지	"	1800년 발문	17권 5책	고대, 연대, 규장각, 원대, 전남대, 국립, 국사편찬, 부산대, 성균관대, 전주대
7	桃灘集	邊사정	-	1810	3책	국립, 규장각, 연대, 전남대, 한중연, 원대
8	活溪先生遺稿	이대유	-	1822년	2권1책	경북대, 국립, 규장각, 부산대, 성균관대, 고대, 연대, 영남대, 전남대, 한중연, 전주대
9	咸陽吳氏族譜	함양오씨족보소	함양오씨족보소	1833년	7권 8책	경북대, 국립, 성균관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주대, 한중연, 한양대
10	豊川盧氏世譜	盧鍾漢	고룡유계	1845년	4권4책	국립, 안동대, 성균관대, 연대, 영남대, 원광대, 한중연,
11	帶方府司馬案		남원부	1864년 이후	1책	연대, 원광대, 전남대, 전주대,
12	勉齋遺稿	양달교	-	1900년대	1책 (57장)	국립, 성균관대, 고대, 연대, 원광대, 전남대, 전주대
13	谿谷集	김복흥	-	1840년 발문	5권 1책	국립, 원광대
14	남원사동김해김씨종안	김재규	사동서원	1850년	1권1책	원광대, 계명대
15	김해김씨대중계	金濟大	"	1862년	1책 (23장)	국립, 연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주대
16	南澗集	유동연	-	1857년	3권 2책	규장각, 연대, 원광대, 전주대
17	磊川集	유호	-	"	4권 1책	규장각, 연대, 원광대, 이화여대
18	昌原丁氏世譜	창원정씨세보소	창원정씨세보소	1872	1권 1책	국립, 성균관대
19	함양오씨족보	吳璋憲편	금남재	1876	9책	국립
20	百拙集	김선	-	1882년	4권 1책	규장각, 국립, 연대
21	健齋先生文集	김천일	-	1893년	7권2책	경북대, 고대, 국립, 성균관대, 전남대, 전주대, 충남대, 한중연
22	澹虛齋集	김지백	-	1895년	6권 3책	국립, 연대, 영남대, 원대
23	豊川盧氏世譜	盧鍾漢	酒谷	1896	6권6책	국립, 성균관대
24	帶方鄉案	-	-	1901년 추정	1책	원광대

25	昌原丁氏世譜	창원정씨 세보소	창원정씨 세보소	1904년	1책	국립, 영남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26	진주소씨족보 :南原派	蘇龜永編	霽月齋舍	1906	2권2책	국립
27	진주소씨족보 : 上護軍派	晉州蘇氏族 譜所 編	"	1906	3권3책	국립
28	咸陽吳氏族譜	吳在烈	雲齋	1909년	8권 1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29	笠澤集	김 감	용동	1902년	4권2책	규장각, 부산대, 영남대
30	山西集	조경남	-	1902년	10권 3책	원광대
31	烏城世稿	崔翼浩	-	1905년	13권 3책	고대, 국립, 성균관대, 연대, 영남대
32	塘村集	黃 暉	-	1907년	7권 3책	고대, 국립, 연대, 성균관대, 전남대, 한중연
33	雲溪集	黃信龜	-	1907	10권 5책	연대, 원광대, 이화대, 전주대
34	天默齋集	이상형	-	1908년	6권 3책	원광대

K C I